

## 1. 검토 배경

- 국제회계기준위원회(IASB)는 2004년 3월 「국제재무보고기준 제4호 (IFRS 4), 보험계약」을 공표하였으며, 이는 최초의 단일 보험회계기준임.
- IASB는 공정가치(fair value)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금융회계기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, 금융회계기준의 범주 안에서 보험사 부채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한 보험회계기준의 제정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음.
- 보험회계기준의 내용은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을 상품설계 당시의 원가 대신 매기말의 공정가치 내지 시장가치로 표시한다는 것임.
- 그러나 현재까지 제시된 국제보험회계기준은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
- 그 이유는 보험사 준비금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거센 반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임.
- 이에 IASB는 2005년 유럽공동체 적용을 위해 IFRS 4를 우선 제정하고, 그동안의 논의와 현장실사를 기초로 구체적인 보험부채 측정기준을 마련한 후 IFRS 4를 추후 개정한다는 수정 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.
- 여기에서는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보험사 CEO들의 인식을 통해 끊임없는 문제제기의 근본 원인을 짚어보고자 함.
- 끝으로, 국제보험회계기준의 긍정적 측면도 살펴봄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 국제보험회계기준의 향후 전망과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.